

濟州 五賢의 教學活動 研究

梁 鎮 健*

目 次	
I. 序論	1. 濟州五賢의 相互關係
1. 五賢의 意味	2. 濟州五賢의 教學活動
2. 濟州五賢과 橘林書院	III. 結論
II. 本論	

I. 序 論

1. 五賢의 意味

한국 교육사상사의 서술과정에 있어서 '五賢'이라는 지칭은 단지 다섯명의 교육사상가를 거론하는 산술적 의미만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내용으로서의 한국 교육사상사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밝히기 위한 단서와도 관련이 된다.

일찌기 한국 성리학의 도통 계보 형성에 있어서 「김굉필·정여창·조광조·이언적·이황」을 이른바 '오현'이라 지칭하였을 때 그것은 정몽주→우탁→김숙자→김종직→김굉필→조광조로 이어지는 도학연원의 확정작업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사상의 정당한 계보마련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이가 창도한 울곡학파에서는 따로 그들의 '오현'을 거

* 濟州大講師·教育哲學

론하기도 하였던 것인데 이는 특정사상가의 주관뿐 아니라 그가 속해 있었고 그의 주관이 어우러져 성립된 당대의 지성풍토, 규범체계, 생활관습 등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새롭게 조망해 보고자 하는 노력이기도 했다. 넓게는 영남학과 와 기호학과간의 사상적 갈등을 의미하는 사례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황을 제외하고는 일단 어느 한 당색에 치우치게 되어 초당적인 지지를 받기 어렵게 되고 또 선조 10년 이후의 학자는 어느 학자이고 간에 거국적인 지지를 받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러한 사상적 갈등은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었다.

갈등의 대표적인 예가 ‘오현’에 대하여 일부 노론과 소론들이 이황을 제쳐 놓고 직접 조광조에다 연원을 내었던 것인데, 즉 노론은 조광조 연원에다 울곡을 대고 또 소론은 조광조 연원으로 성혼을 대었던 것이다. 이러한 ‘오현’의 갈등을 단순히 당리당략적 차원의 자과확보라는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도통이라는 최고의 가치질서를 확립하고자 했던 일련의 사상적 정초작업이라는 의미가 더욱 강하다. 왜냐하면 ‘오현’의 선발은 그 당시 국론으로 정한 것이지만 한두 사람의 제창으로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오현’의 갈등은 도통의 학립을 둘러싼 술한 학문적인 논쟁과 깊게 관련되어 있다는 말이다. 양명학의 배척, 이설에 대한 사문난적의 시비, 주리 주기의 논쟁, 호락논쟁 등이 그것이다. 이것은 곧 문묘배향의 시비논쟁이기도 하였는데 각 학파에 따라서 문묘종사를 주장하는 인물들이 다른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그래서 울곡과 성혼이 문묘에 배향되었다가(숙종 7년) 출향되고(숙종 15년) 다시 배향되는(숙종 20년)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던 것인데¹⁾ 이러한 논쟁들이 곧 ‘오현’의 계보설정에 따른 갈등의 한 단면이다.

이렇게 볼 때 ‘오현’은 한국 교육사상사를 밝히는 데에 있어서 의미있게 기능하는 일종의 통합적인 의미연관을 갖고 있는 사상적 수렴·확산의 구체적 매개체로서 위치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왜냐하면 성리학의 학문적 목표인 도통확립의 기본 골격이 바로 ‘오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애초 공자가 그의 학문과 사상에 있어서 정당한 질서이자 계보로서 「요·순·우·탕·문왕·무왕·주공」을 들었을 때 공자를 포함한 이른바 「8성인」의 의미 또한 ‘오현’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사상적 수렴·확산의 구체적 매개체와 다름 아니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 ‘오현’의 계보설정이란 곧 문묘종사의 갈등을 의미하는

1) 김상오, “당쟁사의 입장에서 본 이이의 문묘종사문제”, 《전북사학》 제4집 참고.

데 이러한 문묘종사의 심각성을 조금 완화해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서원이었다. 서원에서는 문묘종사와는 달리 어느 정도 자유롭게 모시고 싶은 유현들을 모셔 놓고 향사를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수백명에 달하는 유현들이 전국 각처의 서원들에 모셔지게 되었는데 이른바 풀림서원에 배향된 '제주 오현'이 바로 그러한 예이다.

따라서 '제주 오현'은 그 기원이 도통의 확립을 둘러싼 치열한 이념논쟁에서 결과된 것이라기 보다는 비교적 자유롭게 제주지방 자체의 자의적 수준에 의해 배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목민관이나 유배 등의 이유로 입도하여 제주와 관계를 맺은 유현들 가운데서 오현이 선정되었다는 지적인데 이러한 지적은 조선조 제주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관련한 상호 설명력을 구성할 뿐 아니라 조선조 제주도의 교학질서를 해명하는 방향을 암시한다.

2. 濟州五賢과 橋林書院

'제주 오현'과 관련하여 조선조 제주도의 교학질서를 해명하는 방향은 풀림서원의 발생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이를테면 조선조 제주도의 교학질서에 있어서 풀림서원이 그 질서의 형식적 측면이라면 '오현'은 내용적 측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풀림서원과 오현에 대한 동시 조망이 필요하며 이러한 동시 조망만이 이것들이 당시 상황에서의 제주도라는 역사적 과제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자극 주었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애초 서원의 발생은 도통 확립을 모색하는 사림정신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퇴계로 비롯되는 서원 교육운동은 이러한 사림정신의 배양지로서 종적으로는 학통의 계승과 발전을 도모하고, 횡적으로는 학파의 연대와 유대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는 당쟁이 극렬화 되기까지 전국적으로 교학을 창성시키고 문운을 융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각 학파 간의 선의의 학술논쟁은 학문발전의 활력소가 되기도 하였다.²⁾

그러나 900 여개에 달하는 조선조 서원수 가운데 총에 해당하는 300 여개가 숙종(1675~1720)대에 건립되었으며³⁾ 이의 중요한 원인이 정략적인 당쟁에 있어서 초기의 건립 의미는 많이 퇴색해 버렸고 급기야 서원의 수는 당권의 척도

2) 정순목, 《한국서원교육제도연구》,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1980, p.62.

3) 정순목, 전제서, p.31. 표1 「연대별서원의 건립·사액수일람표」 참조.

로 둔갑하기에 이르렀다. 꾀림서원 역시 이 시기에 사액서원으로서 건립이 되었는데 꾀림서원 건립 또한 노론정권의 득세와 관련이 없지 않다.

지역적으로 경상도를 위시한 충청·전라의 삼남지방이 전국 서원의 7할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변방의 함경도만 하더라도 30 여개가 넘었음을⁴⁾ 감안할 때 제주에 존재했던 두 개의 서원의 가치는 역설적으로 새롭게 의미지어지는 것이다.

제주에 서원으로는 꾀림서원과 삼성사가 있었다.⁵⁾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서원은 「道學書院」과 「忠節書院」으로 되어 있어서 전자의 경우에는 「書院」, 후자는 「祠」로 불리우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의미의 서원은 제주도에도 있어서는 꾀림서원이라고 할 수 있으며, 꾀림서원이 도학서원이었다는 면에서 조선조 제주도 교학질서의 인식체계 구축에 가볍지 않은 위치를 부여받게 된다.

도학서원으로서 꾀림서원의 이념 궤대가 즉 ‘제주 오현’인 것이며 冲庵 金淨, 圭庵 宋麟壽, 淸陰 金尙憲, 桐溪 鄭蘊, 尤庵 宋時烈 등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우리는 이들이 제주도라는 지역적 시대상황에서 각각이 이룬 역사적 기능을 구체적으로 찾을 수 있게 되며 아울러 이러한 역사적 기능에 대한 교육사상사적 해석을 통해 비로소 우리는 조선조의 제주도 교육에 관한 정합성 및 근거를 갖출 수 있게 된다.

꾀림서원은 선조 11년(1578)에 조인후 판관이 중종 16년(1521)에 기묘사화로 인해 제주에 귀양왔다가 사사된 김정의 넋을 위로하기 위하여 묘를 세운데서 비롯된다. 효종 10년(1659)에 이회 목사가 제주 선비 김진용의 건의를 받아들여 장수당을 건립하자 현종 6년(1665)에 최진남 판관이 김정의 묘를 장수당 남쪽으로 옮기고 이를 祠로 하고 장수당을 齋로 하여 꾀림서원이라 현액하였다. 그후 현종 10년(1669)에는 김상헌과 정운을 배향하고 숙종 8년(1682)에는 송인수를 배향하면서 사액되었다. 그후 숙종 21년(1695)에는 송시열을 배향하니 이로써 ‘오현’이 배향되었다.⁶⁾

서원의 성립과정에 있어서 제주도의 경우에 특이한 점은 위에서 보았듯이 장

4) 정순목, 전계서, p.32. 표2 「17-18세기 연대별·지역별 院·詞의 건립수」 참조.

5) 김봉옥, 《제주통사》, 도서출판 제주문화, 1987. p.106.

6) 김봉옥, 전계서, pp.106~107.

수당이 굴림서원으로 변모·발전되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장수당이 건립되기 이전에 이미 제주에는 김녕정사나 월계정사와 같은 「精舍」가 있었으며 다른 지방의 예로는 정사가 서원으로 변모·발전되는 데 제주에서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사는 보통 명유가 창건한 講學의 書齋로서 그의 歿後門들이 서원으로 발전시키는 모태가 되었으며 퇴계의 隴雲精舍와 율곡의 隱屏精舍가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⁷⁾

김녕정사나 월계정사가 서원으로 변모·발전되지 못한 이유로는 추측건대 서원 자리를 정하는 데는 풍광이 뛰어난 곳이거나 선현이 講道하던 인연 깊은 곳이 원칙이었기 때문에 장수당이 제주출신의 인재 가운데 한 사람인 고득종의 옛 집터에 건립되었다는 인연과 그 장소가 정사들과 비교해 볼 때 비교적 제주 성안이 가깝고 또한 풍광이 수려했다는 조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생각된다.

어쨌든 굴림서원은 고종 8년(1871)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 의해 폐원되기까지 근 212년간을 제주교육의 요람으로 공헌하였으니 그 가치는 과소평가하기가 어려운게 사실이다. 그러기에 조선조의 제주교육은 ‘오현’의 사상적 세례 속에 가능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두고 최익현은 「이 작은 제주도는 오랫동안 개명하지 못하여 잡스런 말과 가죽옷 등 그 풍속이 비루하였는데 오현이 혹은 귀양살이로 혹은 관직으로 이곳에 와서 백성들이 흥기되고 감격하여 지금까지 공경하니 그 연유를 따져보면 사실은 하늘의 뜻입니다」⁸⁾ 라고 얘기했다.

최익현의 표현대로 ‘오현’과 제주도와의 관계는 하늘의 뜻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두고 우리는 「은혜로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다. 제주도에서의 ‘오현’의 교학활동을 살펴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은혜로운 만남」의 양상인데 즉 ‘오현’의 교학활동이 어떻게 제주도에서 전개되었으며 또한 어떻게 결실을 맺었는가를 밝히는 것이 논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교학활동이란 한편으로는 신체적 활동이나 그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현상·인간현상은 물론이요, 다른 한편으로는 정신적 활동 내지 그 결과에 해당하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은혜로운 만남」에 대한 논의는 전체적인 것일

7) 정순목, 전제서, p.171.

8) 崔益鉉, 《勉庵集》, 蕙爾耽羅久未破荒龙言皮眼陋矣俗尙隱我五賢干埃于職觀惑興作民到今式苟究其意實自天

수 밖에 없다. 예전대 조선조의 지식인들은 정치가이자 문인이며, 또한 교육자라는 일치성을 갖고 있었기에 그들의 교학활동이나 영향력이 전체적일 수 밖에 없는 또다른 이유가 된다.

II. 本 論

1. 濟州五賢의 相互關係

제주 오현으로서 김정, 송인수, 김상헌, 정은, 송시열 등은 각각 상이한 사회·역사적 위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몇 가지 점에서 상호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애초 제주 교육사상사라는 의미는 역사적으로 제주도에 존재해 온 다수의 제주사람들의 생활에 의미있게 영향을 주었거나 그 생활의 영향을 받아 형성·변모·발전한 사고 의식의 내용으로서 교학현상에 대한 나름대로의 체계를 이룬 견해·관점·태도의 흐름 또는 그 흐름에 관한 기록을 뜻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럴때 오현의 상호관련성은 다른 무엇보다 이들 모두가 '제주 사람들의 생활에 의미있게 영향을 주었다'는 측면에서 우선하여 찾게 된다.

이들의 영향이란 시혜적 차원의 개인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조선조 교학사상의 질서체제인 도통과의 두터운 연관 속에서 비롯된 것이다. 때문에 이들이 당대를 계승하는 시대상황의 변화에 직접·간접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측면 또한 상호관련성의 한 예이다. 즉 이들도 교육사상사적 측면에서 조선조 교학질서의 제1 명제인 도통의 문맥과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김상헌과 송인수는 관인의 몸으로 제주에 내도했고 김정·정은·송시열은 모두 불운한 유배인의 처지로 내도했는데 이들 가운데 김상헌과 송시열은 도통의 중심인물로서 직접적으로 도통 제보내지는 자기 학파를 형성하므로써 사상사적 발전을 주도했으며 또한 김정이나 송인수·정은도 도통의 중심세력들과 사제관계 혹은 친교관계를 맺으므로써 도통이라는 성리학적 사유질서에 간접적으로 수용되고 있었다.

오현 가운데 정은과 김상헌 그리고 송시열은 상호간에 관계 내지 역동의 의미가 깊은 관련성을 갖고 있는데 특히 정은과 김상헌이 그렇다. 정은과 김상헌이 활동하던 선조시대는 명·청 교체의 격변기였는데 이러한 정세의 급변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성리학적 도통이 무너지는 것인만큼 尊周의 大義가 절규되었고 그런 명분을 통하여 夷狹의 침략에 항거하는 민족의 저항이 斥和의 이름

으로 강조되었다. 바로 이러한 講議를 대표한 이로서 정온과 김상헌이 꼽힌다. 즉 정온은 曹植의 학풍에서 다져진 의리에 살았고 호란 때에는 산성아래에서 죽지 못하여 망국대부를 자처하였으며 김상헌은 기호의 학풍과 윤근수의 문에서 길러진 명분을 고수하면서 역시 산성에서는 청에 보낼 항복서를 찢었고 출성이 결정되자 안동 학가산에 은거하였다가 심양에서 옥고까지 치렀다. 이들은 다같이 청군에 포위된 고성에서 척화로써 청의를 후세에 길이 남겼는데 특히 김상헌에게 있어서는 그의 청의와 문명이 송시열의 추승으로 후인에게 더욱 널리 알려졌다. 결국 송시열에 의해 김상헌의 청의는 더욱 생명이 길어졌던 것이다.

송시열은 평소 김상헌을 大義의 宗主라 생각하고 書贊(書信으로 책백에 대신함)를 올려서 스승으로 섬겼는데 이로 미루어 김상헌과 송시열의 관계는 사제의 절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이렇게 오현의 개인별 교학활동에 대한 해명보다 오현의 다양한 상호관련 영향을 먼저 살펴 보는 것은 사상사라는 것이 다양한 사상들의 상호관련 영향 속에서 이루어진 여러 굵이의 변화와 발전의 발자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포괄적인 전제를 두고 개인별 사상 및 교학활동이 논의되어야 오현에 대한 인물별 연구형태를 넘어 수준 높은 부문별·주제별 연구가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대체로 오현의 교학활동을 다른 목민관이나 유배인들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교육형식면에서 비형식적 교육의 측면이 강하다. 이러한 비형식적 역할은 공적으로 인정받거나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식적 역할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개성의 발휘를 보장받게 되는데 이렇게 비형식적 역할에서 연유한 오현 등의 개성은 곧 조선조의 제주교육을 다양하게 발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애초 조선조의 건국이념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향교나 서당 등의 형식 교육기관들이 창건되었으며, 제주도에도 또한 그러한 노력들이 있었으나 변방의 형식 교육의 여건이란 참으로 보잘 것 없는 형편이었다. 특히 지리적인 이유로 조선조의 제주도는 행정적 문화적 소외가 당연시되고 유배지로 한정되던 지역이었으며 무엇보다 교육적 소외는 그 심도가 컸는데 정치적 의도에 따라 지역 편중의 교육을 실시했던 조선조의 정책 때문에 조선조의 제주도는 어쩔 수 없이 목민관이나 유배인들의 비형식적 교육감화력에 크게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2. 濟州五賢의 教學活動

① 金淨의 活動

김정은 증중 14년(1519) 기묘사화에 관련되어 처음에는 금산에 유배, 진도에 이배되었다가 동 15년(1520) 8월에 제주목에 유배되어 동 16년(1521) 10월에 36세 나이로 사사되었다.⁹⁾

김정이 활동했던 증중 때에는 교육의 내용이 난숙하게 꽃핀 교육내용 발전기로서 당시 사람의 영수인 조광조가 등용되어 이상적인 왕도정치를 실현코자 하였으며 賢良科를 두게 됨으로써 일시에 사풍이 진작되어 한국 교육사상사에 있어서 가장 높은 수준과 커다란 영향력을 미친 기라성과 같은 존재들이 배출되었다. 김정 또한 이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훗날 퇴계는 「충암의 학문이 딴 사람보다 한층 더 높은데 이같은 견식을 가지고 그 뜻을 펴지 못했으니 어찌 슬프지 않느냐」¹⁰⁾고 했을 정도로 그의 36세로 마감된 학문됨을 아까와 했다. 유학사상사 측면에서 김정의 학문을 일반적으로 生哲學¹¹⁾이라고 하는데 젊은 나이에 이미 그의 학문은 自得과 獨得處가 열려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소장기에 사류의 한 사람으로서 김정은 조광조와 더불어 至治를 목표로 하여 과감한 제도의 개혁을 단행하다가 화를 입게 되는데 기묘사화로 인한 그의 제주 유배는 조선조 제주 교학질서 편성의 새로운 계기가 되는 것이다.

김정의 1년여의 제주 유배는 생생철학이라는 독특한 학문관을 제주도에 전파하는 계기도 되었지만 무엇보다 정몽주→우탁→김숙자→김종직→김굉필→조광조로 이어지는 한국 성리학의 최고 가치 질서를 소개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뜻이 깊다. 이른바 조광조 일파의 한 사람으로서 김정은 누구보다도 조광조의 至治主義를 잘 이해했기에 조광조는 김정을 학자적 자세·경륜·문장이 뛰어난 孔孟之道의 유학 실천가로 지치주의 정치로 국가의 흥업을

9) 《中宗實錄》卷38 15年, 庚辰正月條. 移配珍道…命減死安置 辛巳十月戊申命自盡

10) 金堉, 《해동명신록》, 浪溪曰冲庵學問高於人一等有此見識而不得行其志豈不悲哉

11) 유명중, 《한국사상사》, 이문사, 1981, pp. 277~279.

이를 것이라는¹²⁾ 극찬의 글을 짓기도 했다.

이같은 김정이 조광조의 도통적 영향력을 제주도에 소개하는데 큰 몫을 했으리라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게 된다.

김정의 학문은 제주에서는 金良弼과 文世傑¹³⁾과의 사제관계를 통해 전수되는데 특히 金良弼에 대해서 김정은 관심이 컸으며¹⁴⁾ 이러한 스승의 생산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김양필은 벽지 자제 교육을 위하여 김녕정사와 월계정사를 건립하는 데 진력을 한다.¹⁵⁾

講學藏修의 기능으로서 일종의 私塾(사설 아카데미)이었던 김녕정사나 월계정사의 건립이 김정의 가르침을 받은 김양필에 의해서 이루어 졌다는 점은 이른바 교학활동의 주체자에게 주어진 과업이 무엇인지를 살펴 보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즉 조선조에 있어서 교학활동 주체자의 과업이란 사제의 도통전수를 통한 성리학의 계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배인의 처지로서도 김정은 이 과업에 충실하고자 했으며 김정을 계승하고 있는 김양필 또한 정사의 건립 노력을 통해 후대에게 자신의 과업을 계승시키고 있는 것이다. 애초 조선조의 학문의 내용이란 것이 성리학 일변도였기 때문에 자연히 사제관계를 통한 학문의 계승이 강조되었다. 본래 성리학 자체가 사제의 도통전수를 통해서 계승되기 때문에 성리학을 배우는 사람의 학적 임무는 스승으로부터 도를 전해 받아서 제자에게 도를 전해주는 繼往開來였던 것이다.¹⁶⁾

이러한 제왕개래의 질서가 제주도라고 예외일 수는 없었으며 유배라는 절박하고도 촉박된 상황 속에서 그같은 질서가 김정과 같은 유배인들에 의해 촉발되었음을 볼 때 조선조의 제주 교학질서의 편성과정에 끼친 오현의 몫을 추론 하기가 어렵지 않다.

제왕개래의 질서에 있어서 제자 개개인이 중요하며 가치있는 존재이고 학습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믿는 스승의 느낌보다 교학활동에 있어서 더 중요한 교육적 측면은 없다. 김정이 김양필이나 문세걸에게 갖고 있는

12) 《冲庵先生年譜》，訖，二十二歲條。後重峰趙光先生題其殿策試券日寸晷少陳傳巖語經大手自大成天教孟子開東七錯道興賢國以傾

13) 제주도교육연구원, 《제주교육통사》，신일인쇄사, 1974, p. 87 참조.

14) 《冲庵先生集》(濟州風土錄), 土人生員金良弼外 識文者絶少

15) 제주도교육연구원, 전계서 p. 30.

16) 율곡의 聖學輯要의 구성은 결론이 道統편으로 되어 있으며 「必使斯道大明而大行 以接道統之傳 萬世幸甚」으로 도통전수를 강조하고 있다.

믿음이 바로 그러한 것이었으며 특히 문세걸이가 김정에게 사사하여 학문은 뛰어났으나 34세의 나이로 죽자 스승은 이를 슬퍼하여 시를 남기기도 하는데¹⁷⁾ 이것은 제자의 가치에 대해 스승으로서 김정이 지닌 기본적 느낌의 표현이다.

김정의 제주 유배시 교학활동에 따른 가장 두드러진 점은 건전한 민중생활을 교도하고자 했던 노력인데¹⁸⁾ 특히 미신이 성행하는 풍속에 대해 흥학교화의 모범을 보였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노력이라기 보다는 이미 유배오기 전 중종 13년에 묵은 악습을 타파하고 바른 풍속을 일으켜 온 백성 전체의 학문과 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하여 김안국 등과 함께 실시를 도모했던 향약운동¹⁹⁾과 연계된 차원의 노력이다. 여기서도 우리는 김정을 통해 소개되는 김안국의 도통적 영향력을 보게 되는 것이다.

② 宋麟壽의 活動

김안국의 도통적 영향력이 제주에 본격적으로 소개된 것은 송인수에 의해서 라고 할 수 있는데 송인수는 중종 29년(1534)에 김안로의 재집권을 막으려다가 제주목사로 좌천되어 내도하게 된다. 같은 해 3월에 도입하여 그 해 6월에 떠났지만 당시 제주유생들에게 끼친 감화가 컸던 탓으로 오현의 한 사람으로 향사되었다.

그는 도통의 핵심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 김안국과 절친한 친구사이였는데²⁰⁾ 김안국과의 교류는 곧 정몽주로부터 김굉필로 이어지는 도통의 기본질서와의 접촉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으며 무엇보다 김안국의 小學實踐道學의 학문적 영향력과의 접촉을 뜻하는 것이기도 했다.

제주에 머무른 기간은 불과 3개월 밖에는 되지 않으며 또한 제주에서 병을 얻어 목사직을 사퇴하고 돌아가는 등의 행적을 보건데 제주의 교학질서 편성에 구체적으로 그가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가를 진술하기는 어렵다. 다만 김안국

17) 《冲庵先生集》卷3. 世傑乃謂日某也耽羅之傑也年三十四沒吾之寄哀情見于詩

18) 김정은 특히 祠鬼 숭배와 뱀 숭배에 대해 질타를 했다.

19) 《中宗實錄》卷32 13年.

人心風俗頽弊乃極(中略) 如呂氏鄉約正俗等書乃敦厚風俗之書也鄉約雖載於性理大全而無註解遐方人未易通曉故臣乃詳其彥解(中略) 傳日復撰此等書以教之此書皆有關於風教其下撰集廳開刊廣布

20) 金墳, 전계서, p.604. 金慕齊爲忘年交慕齊臨終語及國事曰後日後日之憂子當任之

과의 교류를 보전데 소학중심의 실천도학을 제주 유생들에게 역설했으리라 미루어 짐작할 뿐이다.

그러나 송인수의 제주 오현 향사는 그가 을사사화(1547)로 사사된지 135년이 지난 숙종 8년(1682)이어서 그가 제주에서 커다란 족적을 남겼기 때문에 향사되었다기 보다는 과당적 이유에서 향사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숙종 때의 서원 남설은 향사 인물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무너진 시기이며 도통 대신에 지연·학연·당연으로 인물이 선택되는 시기였는데 쿨림서원에도 제주와는 연고가 비교적 먼 송인수가 향사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서원 남설의 혼란에서 빚어진 예라고 할 수 있다.

추측컨대 제주 유생들의 거점인 쿨림서원에서 송인수의 향사를 도모한 것은 당쟁적 이유에서 淸議라고 하는 일종의 정치 여론 조작행위를 빌어 이른바 양재역 벽서사건으로 누명을 쓰고 사사된 송인수의 억울함에 대해 복권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지방 선비들의 거점인 서원에서 유생들은 이따금 중앙 정계의 붕당이나 권신들과 표리 상응하여 정치 여론을 조작하여 때로는 국경을 비방하며 때로는 당쟁에 뛰어들어 암투와 음모를 도모하는데 한 몫을 보았던 것이다.

송인수의 향사를 기점으로 쿨림서원은 賜額을 받게 되는데 원래 서원향사에는 賜額·非賜額의 구분이 있어 향사의 경중이 달랐다. 祀典의 경중으로 보면 문묘보다 한 등급 낮은 것이 사액서원 향사였고 또 한 등급 낮은 것이 비사액서원 향사였다. 따라서 사액서원이란 특별한 과시적 기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러한 특별 배려를 누릴 수 있었다.

나라에서 사액을 내리고자 할 때는 홍문관의 대제학 또는 부제학과 같은 명망있는 학자 관원이 먼저 그 書院院號에 알맞는 候補額號 셋을 선정하여 국왕에게 올리게 되어 있다. 이것을 備三望이라고 부르며 국왕은 이 三望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명명한다. 이를 落點이라 하는 것이다. 이렇게 額號가 결정되면 글씨 잘 쓰는 사람에게 위촉하여 쓰게 하고 현관이 내려갈 때는 예조좌랑을 보내어 致祭토록 한다. 이 때에 그 지방의 수령 방백은 모두 이를 맞이하여야 하며 더우기 御筆로써 사액을 내리는 경우에는 서울에서 이름난 刻手로 하여금 그 額을 刻하도록 하고 그 원본이 서원으로 봉안될 때는 의장대와 악대를 동원하여 그 威儀를 돋우게 하였다.²¹⁾

21) 정순목, 전계서, p.173.

이러한 이유와 함께 사액이 되면 자연적으로 공인서원이 되어 전답과 노비 및 서책의 일정량을 동시에 하사하여 서원의 재정을 국가에서 보충하게 되기 때문에 서원에 사액을 받기가 그리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꾀림서원이 사액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제주도라는 지리적 여건이 제일 큰 이유였다. 즉 ‘내륙의 조처와 혼동하여 첩설이라고 의논이 분분한 것은 잘못’²²⁾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송인수의 향사를 기점으로 하여 꾀림서원은 특별 기능의 사액 서원이 되었던 것이다.

③ 金尙憲의 活動

송인수가 꾀림서원에 향사되기 전에 이미 꾀림서원에는 김상헌과 정은이 향사되어 있었다. 김상헌은 선조 34년(1601) 7월에 吉雲節과 蘇德裕 등의 민란으로 도내 민심이 흉흉하므로 동년 8월에 안무사로 제주에 내도하여 각처를 순회하고 다음해 1월 말에 떠났는데 그 사이에 민정시찰은 물론 도민의 의구심을 덜게 하고 각 향교에 들어가 考講도 하였다.

김상헌은 훗날 효종의 종묘배향신이자 도통의 핵심인물로서 기록되는 서인계 기호학파의 대표적 학자로서 김식→김덕수→윤근수→김상헌으로 이어지는 도통계보를 형성하는 교육사상가이다. 그가 제주에 내도할 당시는 기호의 학풍과 윤근수의 문에서 길러진 명분을 고수하는 학적 태도가 가장 무르익었을 32세 때였다. 그 당시 그는 스스로의 독서가 극히 적다고 겸손하면서도 자신의 학문, 문장의 연원이 所從來가 있음을 자부하고 있었다.

안무사로서 부여받은 임무 가운데 교육과 관련된 것으로서는 「본주 유생을 考講 製述로 等第시켜 문서로 보고하라」²³⁾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업무들과 관련하여 김상헌은 제주 사람들과의 첫만남에서 자신의 믿음을 확실하고 의미있게 표명한다. 즉 「나는 지방민을 보니 밖으로는 어리석은 듯하나 안으로는 공교로운 지혜가 많아서 일찍 그 자기의 끈고한 일과 수재의 나쁜 일을 말하여 일일이 밝히고 매우 조리가 있었으며 또 의리를 섞어 말하여서 남에게 경청하게 하였는데 단연히 전연 어리석은 무리가 아니었다」²⁴⁾는 것이다.

22) 《肅宗實錄》 8年 6月 己亥條. 不可與陸地近眠紛紜疊設者比也

23) 金尙憲, 《南槎錄》, 本州儒生考講製述等第啓聞事

24) 金尙憲, 《南槎錄》, 餘見土卜 外似愚蠢 而內多巧慧嘗言其自己 困若之事 守宰無狀乙實 一貫穿甚

예전대 김정이가 제주 사람을 「염치와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누르고, 거칠고 사나운 자는 어진 사람을 겁탈하는」²⁵⁾ 것으로 인식했에 비해 김상헌의 그것은 매우 애정적이다. 사실 교육에 있어서는 다른 무엇보다 애정이야 말로 만남의 참다움을 결정하는 표준이며 타인의 가치와 존엄성에 대해 지니고 있는 일련의 존중감으로서 교육자가 이러한 애정을 지니고 피교육자를 대할 때 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크게 도움이 되는 환경적 풍토를 조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같은 애정의 필요성은 특히 문화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처해있는 학생들을 대할 때 더욱 중요한 것으로서 이같은 논리에 비추어 볼 때 김상헌의 믿음은 매우 긍정적인 것이다.

애정은 존중감인 동시에 타인을 신뢰롭게 인정하는 것, 즉 하나의 믿음이다. 그것은 또한 타인에 대한 보살핌이고 그에게 대하는 따뜻한 감정이다. 하여 김상헌이 「관아의 서리배가 소민을 침어하는 것 같은 일은 언제면 없이 할 수 있을 것인가」²⁶⁾라고 하였을 때 그것은 자신의 믿음에 근거한 배려였던 것이다.

사실 김상헌이 도통의 인물들 가운데서도 중심인물로 위치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무엇보다 이같은 평소의 태도에서부터 기인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같은 평소의 태도 탓에 오직 강직하게 굽힐 줄 모르며 80 생애를 문장과 청의에 살았다고 할 수 있다.

교육학적으로, 피교육자에 대한 존경은 피교육자 내부에 자존심을 배태시킨다. 그들에 대한 신리는 그들 안에서 자신감을 잉태시키는 것이다. 김상헌이 제주 사람들에게 기울인 배려는 그들의 자존심과 자신감을 잉태케 함으로써 결국 오현의 한 사람으로 기꺼이 향사될 수 있었던 것이며 의리의 실천자로 기억될 수 있었다.

김상헌의 배려는 구체적으로 제주에서는 정응정²⁷⁾에게로 이어지는데 정응정은 김상헌에게 사사받을 수 있는 영광을 누리으로써 이른바 김상헌 학통의 제주지역 초전(제1대 제자)으로 위치한다. 4개월 여의 짧은 내도 체재기간에도 불구하고 김상헌은 정응정과 사제관계를 맺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는 옛 선

有條理 且雜以義理 動卜傾聽 斷非全然鹵莽之類

25) 《冲庵先生集》(濟州風土錄) 不知廉義爲何事 以強制弱 以暴恣仁

26) 金尙憲, 《南樓錄》, 若官衙胥輩侵漁小民之事何代無之

27) 제주도교육연구원, 전계서, p. 87.

비의 사제관계라는 것이 단순히 執贊(弟子禮를 통한 執經受業)라는 형식 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면이 없는 서한교육(問目)으로도 사제관계는 성립될 수 있었으며 단 한번의 예방으로도 가능했었음²⁸⁾을 알게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김상헌은 제자를 배출할 수 있었던 것이며 그것은 김정이나 송인수·송시열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김정의 영향을 받은 김양필이가 그랬듯이 정응정 역시 김상헌의 영향을 입고 만년에 후진 양성에 힘을 기울임으로써 제왕개래의 도통전수 임무를 실현시킨다. 김정이나 김상헌의 영향력이 각각 김양필이나 정응정을 통해 조선조 제주 교학질서의 편성에 충분한 계기가 될 수 있었다는 말이다. 또한 조선조 지성사에 있어 도통의 중심인물이 직접 제주에 내도한 경우는 김상헌 외 송시열·최익현 뿐으로서 이러한 뜻에서 특히 김상헌이 끼친 교학적 영향력은 조선조 제주 교학질서를 재편성하는 충분한 계기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④ 鄭蘊의 活動

김상헌과 함께 정의의 인물로 기록되는 정은은 광해군 6년(1614) 영창대군의 옥사에 대해 상소하고 그 가해자에 대해 참수할 것을 주장하다가 그 해 8월에 제주 대정현에 유배당하게 되어 10년간 유배생활을 하였다.²⁹⁾

김정이 제주에서 1년의 유배생활을 하였고 송시열이나 송인수·김상헌 등이 각기 3, 4개월 남짓의 적거 및 부임생활을 하였는데 비해 정은은 무려 10여년을 제주에서 보냈으니 역설적으로 그가 제주에 끼친 영향력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그의 학풍은 曹植의 문하에서 길러진 것인데 즉 조식→정인홍→정은³⁰⁾으로 이어지는 학맥이 그것이다. 조식은 性命을 닦은 후의 實行을 주창하고 敬義를 신조로 하여 反躬體驗과 持敬實行을 학문의 목표로 삼았던 도통의 대학자로서 그의 학문적 전통은 정여창, 김평필, 김일손 등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른바 영남 학파를 확립시킨 커다란 세력 가운데 한 사람이다.

28) 光海君日記 6年 甲寅 7月 ‘鄭蘊定配大靜’

29) 정순목, 《퇴계의 교육철학》, 지식산업사, 1986, p.305.

30) 金濟, 전제서, p.719. 蓋公自幼受學於鄭仁弘, 혹은 이황→정구→정은의 계보를 얘기하기도 한다. (姜周鎭, 《退溪學 研究》, 1972, p.290참고).

조식은 서경덕, 이연적, 이황, 기대승, 이이 등과 더불어 이른바 이기철학으로서 16세기 후반의 지성계를 완전히 지배하는데, 정온의 학문이 四書에 근본을 두고 心經近思錄·孝亭文集·性理大全 등에 이를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조식의 영향이었다.

이렇게 정온은 조식 학파의 재전(제2대 제자)적 인물로서 유배될 때도 수백권의 서적을 가지고 와, 일상 독서로서 일과를 삼았고 또한 대정현감이 적소 경내에 서재용으로 두칸의 집을 지어 주었으므로 그 곳에서 자연스럽게 지방 유생들을 교학할 수 있었다.³¹⁾

지방 유생들과의 교우는 말할 필요도 없이 사제관계의 형식으로 맺어졌으리라 추측이 되는데 왜냐하면 정온에게서 사제관계는 특히 준수되어야 할 원칙으로서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그는 어려서부터 정인홍에게 수학을 했었지만 스승의 잘못됨에 대해 직언을 삼가지 않았으며 결국 그로 인해 그들 사제관계는 불화를 빚는데 그러한 불화 때문에 정인홍의 제안에 따라 정온은 10년의 대정현 유배생활을 당하게도 되지만 그러나 정인홍이 뒷날 죽임을 당하자 정온은 그의 시체를 수습하기를 청해서 그 사제간의 도리가 끝까지 변치 않았음을 보여 줌으로써³²⁾ 사제관계란 어떠한 이유에서도 준수되어야 할 원칙임을 웅변한다.

사제관계란 조선조 지식인들이 당연히 준수해야 할 삶의 기본자세였으며 절대원칙이었다. 그것은 다만 학문의 전수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생사의 관계까지도 의미하는 윤리체계였던 것이다. 무엇보다 선비들의 본질적인 문제로서 선비가 선비인 까닭이 사제의 인륜때문이며 그래서 선비들은 君과 師와 父를 삶이 영위되는 기본 전제로 보았는데 이러한 君師父一體 의식 때문에 선비들은 낳아준 父와 가르친 師와 먹여주는 君을 하나같이 섬기고 그 은혜를 죽음으로서 갚아야 했던 것이다.

훗날 정온에 이어 제주에 유배를 온, 오현의 한 사람인 송시열이 제자 윤증과의 불화로 마침내 사제간의 의가 끊어지고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지는 등 반목으로 마감된 사제관계의 예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온의 경우처럼 사제의 인륜에 도리를 다하는 것이 선비들의 직분이자 삶의 실

31) 제주도교육연구원, 전계서, pp. 67~70참조.

32) 金堉, 전계서 권8. 鄭蘊편 참조.

체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정은이 지방유생들과의 만남이 사제관계의 형식을 띠었으리라 추측되는 것이다.

이렇게 조선조 지식인들에게 사제의 인륜에 대한 의식이 뿌리 내리게 된데에는 몇 가지의 중요한 원인이 있다. 그것은 우선 선조부터 시작된 훈학정책의 결과로 전국의 군·현에 향교가 설립되었으며 따라서 유생의 숫자가 급팽창하게 된데서부터 찾을 수 있다. 또한 門閥보다 과거를 우선하는 정책을 펴며 따라서 관인으로서의 진출이 실력 위주로 변하여 급제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 지게 되고 과거준비를 위해서 스승 밑에서 수학하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었던데 그 원인이 있다. 아울러 앞서도 지적했듯이 학문의 내용이 성리학 일변도이었기 때문에 자연히 사제관계가 강조되었다. 본래 성리학 자체가 사제의 도통 전수를 통해서 계승되기 때문에 성리학을 배우는 사람의 학적 임무는 스승으로부터 도를 전해 받아서 제자에게 도를 전해 주는 繼往開來인데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사제의 인륜에 대한 의식이 성숙되어 가던 중 무오사화가 일어남으로서 스승의 죄 때문에 무고한 제자도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것을 계기로 사제의 관계는 학문의 전수에서 생사의 관계로까지 심화되었던 것이다.

정은은 대정현 유배생활 중 중국 은대부터 남송시대에 이르기까지 성인과 현인 중에 困厄과 우환이 있더라도 정직을 잃지 않고 참는 천성과 위태로움을 조절하고 깊음을 생각하는 본받을 만한 인물 59인의 사적을 모아서 德辨錄이라는 이름으로 편집하여 自省書라 하고 매년 3월 원단에는 자경잠을 지어 수양에 힘썼는데 이럴 때의 마음가짐을 정은은 다음과 같이 시로 남겼다.

밤 기운이 淸淨하니
소리높여 옛성인들의 잠명 읊네.
先賢들이 눈앞에 있는 듯
明訓을 마음에 새길 만하네.
대하여 공경함을 구하니
근본은 다만 공경에 있네
깊이 세번이나 반복하니
빈방에는 月星만 어울리네. (의역)³³⁾

33) 夜氣方淸淨／高聖誦古箴／先賢如在目／明訓司銘心／對越常要敬／淵源只是欽
／沈潛三復了／虛空月星臨 (桐溪集)

옛 성인들의 가르침은 지식의 체계나 원리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기본이 되는 도리를 닦고 실천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敬이라는 禮의 개념이 중심 내용이 되고 있다. 여기서 인간의 내재적 질서의 개인 윤리를 강조했던 小學의 세계관을 엿볼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심학은 절의와 명분이라는 주자학적 가치관의 정립을 그 목표로 했었다. 정운은 훗날 김상헌과 함께 이러한 심학적 세계관의 목표에 충실을 다함으로써 청의의 인물로 기록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정운이 제주에서 교학활동을 할 때 무엇을 가르쳤겠는가 하는 가르침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⑤ 宋時烈的 活動

송시열은 조선조 중기의 대학자요 내정치가로서 서인의 거두요 노론의 영수인데 숙종 15년(1689)에 세자책봉 문제로 83세의 고령에 제주에 유배를 오게 된다.³⁴⁾

그의 학문은 추상적이며 공리공론을 일삼는 이론성리학의 차원에 얽매이지 않고 공자와 맹자의 중심철학인 心法學과 道學을 충실하게 계승하고, 조선조에 있어서 경제학의 대표자인 조광조, 이이, 김장생으로 전수되는 도학과 예학을 계승하여 直哲學과 심법학을 발전시켰다.³⁵⁾

그의 제주적거는 기간이 백여일 밖에는 안되지만 당대의 거유요 석학이었다는 점에서 영향력의 파장을 쉬 짐작할 수가 있다. 즉 그의 내도 자체가 제주의 교학질서에 하나의 충격이었으며 큰 자극이었던 것이다. 비록 사계동행이라는 실질적 관계를 형성하지는 않았지만 그와 제주 유림과는 도통의 영향 아래 인격적이고 정신적인 세계 안에서 서로를 공유했고 서로 같은 이해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교류야말로 제주 유림의 정신사를 살피우는 기본 원동력이었고 풍성한 사계관계를 가능케 한 자양분이었다. 비록 그는 83세의 고령으로 내도³⁶⁾였지만 주자대전을 읽고 제문을 짓고 또한 論孟問議 通考를 저술하는³⁶⁾ 등의 집요성을 보인다. 이 의식의 집중이야말로 송시열의 가르침의 본래적 핵심인 것이다.

그의 도통 계보는 이이→김장생→송시열→김만기로 이어지는데 특히 송시열

34) 安鍾和, 《國朝人物志》(Ⅲ) p.145 '肅宗己巳謫于 濟州拿到井邑賜死'

35) 韓國哲學會編, 《韓國哲學史》, 中卷, 東明社, 1987, p.363.

36) 제주도교육연구원, 전제서, pp.73~74.

의 영향력은 그의 제자 김만기를 통해 제주에 더욱 강하게 전파된다. 즉 김만기의 아들 김진구, 손자 김춘택, 김진구의 사위 임정하, 이렇게 세 사람이 제주에 유배를 오게 됨으로써 자연스레 김만기의 영향력이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인데 김만기의 영향력이란 다름아닌 바로 송시열의 그것이었던 것이다. 이밖에 송시열의 학문의 그의 스승 김장생으로부터 의리를 내용으로 하는 예학을 습득하고 김상헌 등의 영향으로 이른바 의리학파를 여는 지봉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러한 우리 학풍은 한말에 최익현의 유배로 제주에 전파된다.

이러하면 김진구와 사제관계를 맺은 제주유림의 이중발이나 오정빈·고만첨·김덕항 등의 활동이나 최익현과 사제관계를 맺은 이기온, 그의 아들 이응호 등의 활동들이야말로 넓게는 송시열의 사상적 세례 속에서 배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이다. 분명한 것은 송시열의 제주유배로 말미암아 제주 교학질서의 분위기는 결정적으로 기호학파의 그것으로 편입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죽기전에 제주도로 찾아온 제자 권상하에게 유서를 대필하게 하고 화양동에 만동묘를 세워 명나라의 신종과 의종의 위패를 모실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으며 평소에 신조로 삼아오던 직에 대하여 다시 언급하였다. 그의 직철학은 근원적으로 사용이 淨盡된 진실무망한 생의 순수성과 원초적으로 통연히 통달하고 광영정대한 생의正大성을 포괄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는 「직이 아니면 생의 도의 근원을 잃게 되어 죽음을 면치 못한다.³⁷⁾」고 하였다.

이러한 마지막까지의 송시열의 태도는 일련의 자기자신에 대한 믿음의 표명이기도 하다. 사실 개개인이 자신을 보는 방과 타인을 어떻게 보느냐하는 방식 사이에는 분명한 상관성이 있다. 교육학적인 측면에서 교육자의 자기 이해는 자신의 느낌에 보조를 맞추거나 보다 효율적인 교육자가 되기 위한 필수요인이다. 송시열의 집요한 의식의 집중이야말로 그러한 자아개념의 발로이며 이러한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그는 제주도의 유림들로 하여금 긍정적이고 실제적인 교학질서를 형성케 하는데 큰 도움을 주게 되었던 것이다.

서원의 향사인물은 초기에는 그 기준이 엄격하였지만 후대의 서원 남설은 그 기준이 무너져 지연·학연·당연 때문에 별 연고도 없는 인물을 빌어 오기 조차 했는데, 조선조 서원 향사인물이 모두 687명으로 그 가운데 송시열이 28

37) 《炭翁集》，卷135 雜著，字說。不直則失其以生之道 而不死於死矣

곳에 향사되어, 가장 많이 향사된 인물의 하나로 기록된다.³⁸⁾ 제주 굴림서원의 송시열 향사는 다른 어느 곳보다는 비교적 그 향사 이유가 뚜렷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역설적으로 그것은 제주도가 유배지가 아니고서는 누릴 수 없었던 기회였던 것이다.

Ⅲ. 結 論

한국 교육사연구의 폭을 심화·확충시키기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가 향토교육사의 연구다. 중앙집중적인 교육사 서술의 태도로는 구체적이고 생동적인 지역인식은 불가능할 뿐더러 삶으로서의 민중사나 그들의 풍속지를 다루는데 소홀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경직성과 주변성을 올바르게 극복하는 길은 관료사적 성격을 벗어난 향토교육사의 다양한 문재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 아래 본고가 서술되기는 하였으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되풀이 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렇다면 「조선조 제주교육사」를 서술할 때 내용에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완전한 「한국교육사」가 되는 등의 애로사항이 그것이다. 이것은 첫째 향토교육사의 내용을 확충해 줄 향토자료 보전이 거의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제주교육사의 고유성을 웅변할 만한 교육관계의 향토자료는 절대적으로 빈약한게 사실이다.

아울러 그러한 애로 사항은 향토교육사 서술에 있어서 포괄적인 뚜렷한 문제의식을 갖고 연구과제를 엄선하지 못한데서도 기인한다. 광범위한 자료개발과 엄밀한 연구절차가 없이 단순한 호기심을 충족하려는 연구라든지 호사가적 입장은 금물이다. 이런 뜻에서 전문가의 계속적인 연구성과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본고가 오현이라는 특수한 계층의 교학활동을 단순히 서술하기 보다는 되도록 제주 사람과의 연계과정에 장을 할애하고자 했던 의도 역시 제주도라는 지역의 특색있는 교육의 역사를 궁극적으로 드러내 보이하고자 함이었다.

38) 서원향사의 내용을 典故大方 書院享祀條에 의거하여 서원의 수와 향사인물의 수를 통계내어 보면 서원의 수는 사액서원이 205곳이고 비사액서원이 196곳으로 모두 401곳이다. 여기서 향사되어 있는 인물의 수는 사액서원이 290명, 비사액서원이 397명으로 모두 687명이다. 그리고 가장 많이 향사되어 있는 유현은 ①퇴계 31곳, ②송시열 28곳, ③율곡 20곳의 순으로 되어 있다.

본고와 관련하여 조선조 제주교육의 특이성 가운데 하나는 그가 목민관으로 내도했든지, 유배인의 처지로 내도했든지 소위 교육자가 될 수 있었으며 그 확률은 유배인의 경우가 더 높았다는 것이다. 제주도에 유배를 올 정도이면 최고의 죄으로 분류되었을 것이지만 그 죄인은 제주도에서는 최고의 스승이 될 확률이 누구보다 컸고 실제 오현 가운데 김정, 정온, 송시열 등은 바로 이를 예증한다. 이것은 역사적 아이러니이며 유배지로서 제주교육의 특이성을 규정하는 사례이다.

제주 오현 이외에도 제주교육의 내용을 풍부하게 해준 목민관이나 유배인들이 많다. 그들에 대한 언급은 다른 장소에서 논의가 되겠지만 이들에 비해 오현의 활동이 유별하거나 두드러지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오현의 선정이 치열한 이념논쟁에서 비롯되었다기 보다는 자의적 수준에서 한정되었기도 하고 파당적 흐름의 한 결과로서 규정된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분명한 것은 오현이 향사됨으로써 제주교육의 이념적 궤도가 구체화되었다는 것인데, 즉 제주 유림의 본산지인 굴림서원의 내용적 구심체 역할을 오현이 맡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굴림서원이 건립되던 서원남설의 시기에는 서원의 건립이 대개 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서원에 향사되는 인물은 자연히 가문중심이 되어 어떤 경우에는 家廟인지 서원인지 구별이 어려울 정도였는데 굴림서원은 이러한 혼란을 극복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제주 오현은 제주 유림 모두에게 정신적 구속력을 발휘할 수 있을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개별적으로 김정이나 정온에 비해 김상헌이나 송인수·송시열은, 특히 송인수는 실제 교학활동의 예는 미미했으나 일단 오현의 한 사람으로 향사됨으로써 그 영향력은 제주 오현이라는 이름으로 후대 유림들에게 베풀 수 있게 된 것이다.

본고는 여러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 오현에 대한 교육학적 조망의 선행작업으로 필자의 “朝鮮朝 濟州教育의 精神史的 系譜”³⁹⁾ 및 “朝鮮朝 濟州教育의 精神史的 展開”⁴⁰⁾ 그리고 “朝鮮朝 濟

39) 제주도연구회 제26차 연구발표회 (제주우당도서관, 1986. 9. 27) 발표요지.

40) 제대신문 제304호.

濟州 五賢의 敎學活動 研究

州敎育思想史 研究”⁴¹⁾를 보충하는 글로서 “秋史의 濟州敎學活動 研究”⁴²⁾와 함께 조선조의 제주敎育의 전개과정을 敎育사상사적 측면에서 闡明하기 위한 시도이다.

41) 《제주도연구》 제3집, 제주도연구회, 1986.

42) 《탐라문화》 제6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7. 2.

참 고 문 헌

- 김상현, 《남사록》, 《청음선생집》
김 욱, 《해동명신록》
김 정, 《제주풍토록》, 《충암성생집》
박세채, 《동유사우록》
김봉옥, 《제주통사》, 도서출판 제주문화, 1987.
김종업, 《탐라문화사》, 조약돌, 1986.
양순필, 《조선조유배문학연구-제주도를 중심으로》, 전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2.
유명종, 《한국사상사》, 이문사, 1981.
정순목, 《한국서원교육제도연구》, 영남대 출판부, 1980.
정순목, 《퇴계의 교육철학》, 지식산업사, 1986.
제주도교육원, 《제주교육통사》, 신일인쇄사, 1974.
제주도교육위원회, 《제주교육사》, 제주도교육사편찬위원회, 1970.
제주도교육위원회, 《탐라문헌집》, 신일인쇄사, 1976.
한국철학회, 《한국철학사》, 동명사, 1987.
F. Cordasco, *A brief fhistory of Education* Littlefield, Adants & Co. 1963.
J. S. Brubacher, *A History of the Problems of Education* McGraw-Hill Book Company, Fnc. 19477.